선교소식

멕시코 엔세나다 벧엘교회

광풍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 마가복음 4장 41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는 벧엘교회입니다. 언제나 이곳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엔세나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와 거센 물살은 많은 가정을 덮쳤고, 이번 재난으로 엔세나다에서 총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네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겨우 네 살 된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웃들의 슬픔 앞에서 저희 역시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벧엘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의 집에는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또 다른 가정은 집 앞의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이 남긴 두려움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복음의 소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배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광풍을 만날지 알지 못하며,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광풍보다 크신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재난이 없는 삶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라, 어떤 광풍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러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도 허락하셨습니다. 최근 벧엘교회의 오마르 형제와 이사벨 자매의 가정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드리엘입니다.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생명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드리엘이 태어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사랑받으며,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자라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드리엘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벧엘교회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풍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은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임주영 목사 드림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Peace from Knowing Our Purpose

Passage: Galatians 2:20 (ESV)

Date: October 18, 2026

Pastor: Dong Suk Chung

God is Spirit, so He has no physical form. He made human beings as vessels for His presence. It is like making a glove for a hand. A glove can do nothing alone, but when a hand enters it, it can do great things. In the same way, God made us so He could dwell in us and work through us. Designed to hold God, we find our purpose, our value, and our place. Yet people today look at themselves and feel dissatisfied, carrying an emptiness they can't explain. We study, work hard, and chase money to fill it, yet lasting satisfaction never comes. To fix the problem, we have to find its root.

Just as God created a companion for Adam after putting him to sleep, Christ's death on the cross prepared a bride for Himself, the church. To make this a reality, He placed two trees in the middle of Eden: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y eating from the tree of life, God and man were meant to become one. But God warned them about the other tree: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However, Satan appeared and deceived them, saying, "*You will not surely die.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Humans found Satan's words more convincing than God's and ate the forbidden fruit. In that moment, Satan entered into human beings and took over, so that humans became the embodiment of Satan. When we were first formed from dust, there was no "master" called "me". But Satan entered the form that was meant for God alone, and a fake god was born: the "I" who is in charge. This is why Jesus said,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brood of vipers!*" This desire to be our own master is the original sin that ruins our lives.

When the Israelites left Egypt, God led them to the edge of the sea, which seemed like a place of death, with enemies behind them and water ahead. So the people complained. Then God parted the sea and made a path. Later, when they grumbled that they were dying of thirst, God had Moses strike a rock and water poured out. That rock points to Christ, struck for us on the cross. Today, we are spiritually thirsty and perpetually dry despite filling ourselves with everything but Christ. But God sees our suffering and wants us to be fulfilled with the eternal living water that is Jesus Christ. The hardships God allows lead us back to that cross, where our old self dies with Jesus and living water flows.

Christianity is not a philosophy to learn; it is based on a real historical event in which Jesus bore the burden of our sin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he cross is the event that completely brought an end to the old, Satan-possessed self. Through His resurrection, a new life has begun where Christ now lives within me.

What makes us miserable is not our parents or our circumstances. It is the Satan-possessed "me" that is still alive inside us. As long as that "I" lives, anxiety, worry, and pain will never end. A life run by our own plans, with ourselves in charge, only brings more trouble. Even trying hard to be a good Christian becomes a lifelong burden if we do it in our own strength. The apostle Paul confessed that he decided to know nothing but the cross, had nothing else to boast about, and died daily. The core of the Christian life is not what I do for the Lord, but surrendering myself over to the death of the cross every day. When Paul prayed three times for his thorn to be removed, God said,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Once Paul understood this, he was grateful for his weakness, his need, and his hardships.

When a ship bumps against rocks in shallow water, God does not remove the rocks. He abundantly fills the water with grace until the ship floats over them. Looking at any problem or environment with anxiety is proof that "I" am still alive and an act of unbelief of stepping into the role that belongs to God. When I die, Christ who is within me appears and personally takes charge of my health, my family, and every problem in my life. The message of Galatians 2:20 is not about achieving something by reaching a higher spiritual level. It is about receiving by faith a finished fact: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When we surrender the self we have worshiped like an idol and nail it to the cross, the living Holy Spirit within us goes to work, allowing us to enjoy a life of perfect peace and victory.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날짜: 10월 18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 형상과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손을 위하여 장갑을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장갑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손이 들어가면 위대한 일을 해내듯,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귀이자 가치요 위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 불만을 없애기 위해 배우고 열심히 돈을 벌며 애를 쓰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한 짝이 되는 배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나타나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며 꾀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여겨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사탄의 체현, 즉 완전히 마귀화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나라는 주인이 없었으나,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할 형상 속에 사탄이 들어와 '내가 주인 된 나'라는 가짜 하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짜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내 일생을 망치는 원죄입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걸어가야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도달된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적이 쫓아오고 앞은 바다인 죽음의 장소에서 백성들은 원망하며 돌을 들었지만, 바닷물이 갈라져 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영생하는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목적은, 내 안의 반석(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깨뜨려 영원한 생수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승격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도를 배우거나 지키는 철학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탄화된 옛 사람(아담)을 죽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건이며, 부활을 통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은 부모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사탄화된 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불안과 염려, 근심과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갈수록 환난과

고통뿐이며,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하려 한다면 평생 고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매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세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하셨고, 이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궁핍,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배가 얕은 물에서 바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바위를 치워주시는 대신, 바위를 넘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모든 건강, 가정, 삶의 문제를 친히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완성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섬겨오던 나를 십자가에 내던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한 평강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해당 설교는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 여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번달 11월 정기행정위원회는 11월 셋째 주일인 11월 15일로 연기합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회 주일학교 Harvest Festival 가을 축제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최귀순 전도사 (81세)
뇌경색과 경미한 뇌출혈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순옥 집사 (한나선교회)
척추에 실금이 가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김성일 장로 (라스베가스)
직장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병길 형제 (제2남선교회)
낙상으로 무릎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정헌 형제 (제1남선교회)
간암 진단으로 면역치료를 준비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영숙 자매 (제1여선교회)
담낭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풀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